

# 기업이 해킹 사실을 두 달 동안 몰랐다니...

**인터넷 회원 1030만명 개인정보 유출...주민번호 미포함 해킹 인지 열흘 만에 등장 대응...기업 보안 불감증 '도마 위'**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넷에서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인터넷 등에 따르면 인터넷 회원 1030만명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에 의해 유출됐다. 회원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

화번호가 새어나갔다.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은 해외에 서버를 둔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APT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해 오랜 기간 공격을 하는 해킹 방식이다. 경찰은 해커가 지난 5월 인터넷 직원들에게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강동화 대표는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사실을 인지한 지 열흘 만에 회원들에게 공지한 데 대해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은 지난 11일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3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받고 나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25일 공지를 통해 알렸다.

해킹을 당한 사실을 2개월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보안 기술과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한 해커의 공격은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사과 원인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통화 및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휴가철을 맞아 이동통신사들이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동기지국 배치, 기지국 용량 증설 및 24시간 비상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 SKT·KT·LG유플러스

## 휴가지 '무선 인터넷 속도' 이상무 이통 3사, 기지국 증설 등 24시간 비상운영

이동통신사들이 통화 및 데이터 트래픽이 불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책 수립에 나섰다. 매년 휴가철 주요 피서지에서는 이동통신 트래픽이 크게 늘어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올해 주요 피서지의 트래픽은 평시와 비교해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따라 기지국을 증설하는 한편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특별 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이동기지국 배치, 기지국 용량 증설 등의 준비를 완료했다.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등 수년 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서지 주변 기지국 5000여개 등

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SK텔레콤은 이 설비들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휴가철 소통대책에 나선다.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8월7일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잡았다. 상황을 통해 매일 200여명의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아울러 최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속초, 양양, 울산(간절곶)에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는 한편 와이파이존 확충과 이통 AS 차량 배치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KT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총 617개소의 주요 휴양소에 구축돼 있는

LTE 기지국 2400여곳과 3G 기지국 690여곳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시작했다. 또 총 11개소에는 이동기지국을 비롯해 총 11석의 기지국을 추가 증설했다. KT는 국성수기인 8월7일까지를 트래픽 발생 최고점으로 보고 네트워크 과부하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트래픽 급증시 경기도 과천시 위치한 네트워크 통합관제센터와 각 지역간 실시간 과부하 제어를 통해 소통이 잘 되도록 하고,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휴가철 네트워크 운영 준비를 마치고 24시간 비상운영에

돌입했다. 주요 관광지에서 통화 및 데이터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고속도로 분기점 등 수년 간 누적된 사용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트래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추가 선별하고 소행 기지국 및 통화채널카드를 증설했다. 비상상황 속에서 비상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휴가 기간 전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및 장애 발생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현장 운영요원을 파견해 긴급 대기조를 2배 이상 증원했다.

김명근 기자



기아자동차 '더 뉴 카렌스'는 내·외관 디자인을 더욱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업그레이드했다. 1643리터의 넓은 적재공간, 다양한 수납공간, 자유로운 분할 폴딩이 가능한 시트 등을 통해 SUV 대비 높은 실내 공간 활용 능력을 지녔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 기아차 '더 뉴 카렌스' 판매 개시

2·3열 접으면 적재공간 1643리터 확보...1.7 디젤 2410만원

기아자동차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쿤스트갤러리에서 열린 미디어발표회에서 '더 뉴(The New) 카렌스'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다. 라디에이터 그릴, 안개등, 전면 범퍼, 리어램프, 타이어 휠 등의 변화를 통해 전체적

인 차량의 불륨감을 높여 강인한 인상을 준다. 실내 인테리어도 그래픽 개선으로 시인성이 높아진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더 뉴 카렌스는 미니밴 특유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 준중형 SUV 이상

의 공간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다. 2인승의 경우 2·3열을 모두 앞으로 완전히 접으면 1643리터의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준중형 SUV가 2열을 완전히 접을 때보다 넓은 수준이다. 5인승의 경우 트렁크 공간만 중형 세단 수준인 495리터다. 또한 자유로운 분할 폴딩이 가능한 시트를 통해 탑승자가 수하물의 공간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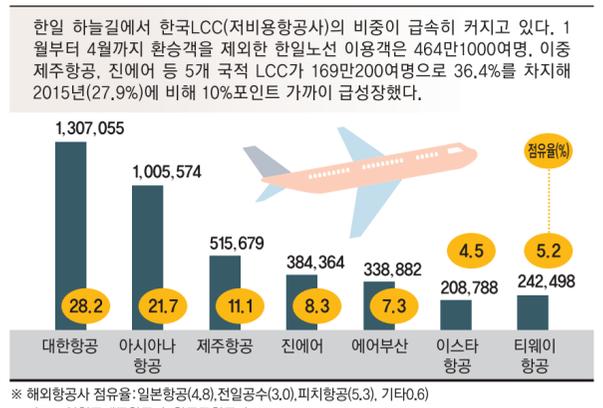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킨 1.7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34.7kg·m을 발휘하며 7단 DCT를 장착해

14.9km/l의 복합연비(구 연비 기준)를 낸다.

연비향상 효과와 정차시 소음 및 진동 억제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형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을 장착하면 복합연비가 15.7km/l로 향상돼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다. 2.0LPI 모델은 최고 출력 154ps, 최대 토크 19.8kg·m이며 연비는 8.4km/l이다. 더 뉴 카렌스의 가격은 1.7 디젤이 2410만원, 2.0LPI는 2000~225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 데이터로 보는 경제 한일노선 LCC 급성장



## 고열량 복날 보양식은 저칼로리 음료와 함께

### ■ 보양식과 궁합 좋은 음료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로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열량의 보양식과 함께 즐기면 좋은 저칼로리 음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보양식들은 1인분 당 칼로리가 약 700kcal에서 900kcal 이상이다. 하루 권장 섭취 열량(2000kcal)의 절반에 가까운데다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소 높아 함께 섭취하는 음료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칼로리가 낮거나 아예 없는 탄산수, 차음료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살펴봤다.



### ● 개운한 탄산수와 저칼로리 차음료

당분과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탄산수는 칼로리 부담 없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 무거운 맛의 보양식과 곁들이기에 제격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블링블링 스파클링 워터 '디아망'은 냉장 주입 공법을 활용해 탄산의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수 제품이다. 상쾌하고 깔끔한 맛으로 물보다 청량감을 선사해 기름진 음식과 궁합을 이룬다. 탄산수 본연의 깔끔함을 즐기고 싶다면 '디아망 플레인'을, 음식의 느끼함을 달래고 싶다면 상큼한 과일향의 '디아망 라임', '디아망 자몽'을 추천한다.

물처럼 가볍게 마시기 좋은 제로칼로리 차음료는 차 특유의 은은한 향미와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는 우리 곡물을 사용해 만든 깔끔하고 구수한 맛의 보리차 음료다. 지난 5월 리뉴얼을 통해 보리추출액 함량을 늘려 고소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보리는 찬 성질을 지녀 예로부터 열을 식히고 기를 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설록은 최근 달콤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4가지 아이스티 '제주 아일랜드 씬머 컬렉션'을 리뉴얼 출시했다. 유자

- 1 하이트진로음료 '디아망'
- 2 울리타리아 '드링크 비니거'

가 아닌 분쇄 형태의 스틱형 티백이라 찬물에도 잘 우려나 간편하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 해독작용, 황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는 카테킨 성분의 녹차를 중심으로 꿀, 머스캣 등의 원료를 섞었다.

### ● 피로회복 및 체내 중성지방 배출에 효과적인 음용식초

물에 희석해 마시는 음용식초도 식후에 즐기면 좋은 음료다. 칼로리가 낮을 뿐 아니라 피로회복, 체내 중성지방 배출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울리타리아의 '드링크 비니거'는 오크 통에서 숙성시키는 전통 방법으로 만든 발사믹 식초를 베이스로 한 '마시'는 식초음료다. 모데나산 발사믹 식초에 설탕 및 식품첨가물 없이 100% 과즙만을 첨가해 칼로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호에 맞게 생수, 탄산수 등에 섞어 마실 수 있으며 따로 손질된 수분 및 영양소 보충에 도움을 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친구 데려와, 깎아줄게"

학원업계, 8월 개강 앞두고 네트워크 마케팅 활발

교육업계가 8월 개강을 앞두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효과를 위해 개인을 1:1 맞춤 홍보 매신자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점은행 교육기관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은 8월2일 여름학기 개강을 맞아 '이야기 프렌즈' 혜택을 제공한다. 추천회원이 많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상품권의 금액이 높아진다. 등급별로 추천인 1명당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온라인 자격취득 전문기관인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역시 신규 수강생 모집을 기념해 친구와 함께 수강할 경우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외국어전문 영단기는 '친구와 함께 하면 신도의 응시료 0원' 이벤트를 연다. 친구에게 '영단기 신도의 0원 프리패스'를 소개하고 아이디를 등록하면 출석 미션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두 명 모두에게 신도의 응시료를 100% 현금으로 지원한다.

IELTS 전문어학원 edm아이엘츠는 친구와 함께 등록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 글로벌 영어강의업체 엔구는 소개자에게 강의권 3매, 소개를 받아 유료회원이 된 사람에게 첫 달 수강료를 5000원 추가 할인해준다.

양형보 기자

교육업계가 8월 개강을 앞두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효과를 위해 개인을 1:1 맞춤 홍보 매신자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점은행 교육기관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은 8월2일 여름학기 개강을 맞아 '이야기 프렌즈' 혜택을 제공한다. 추천회원이 많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상품권의 금액이 높아진다. 등급별로 추천인 1명당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온라인 자격취득 전문기관인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역시 신규 수강생 모집을 기념해 친구와 함께 수강할 경우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외국어전문 영단기는 '친구와 함께 하면 신도의 응시료 0원' 이벤트를 연다. 친구에게 '영단기 신도의 0원 프리패스'를 소개하고 아이디를 등록하면 출석 미션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두 명 모두에게 신도의 응시료를 100% 현금으로 지원한다.

IELTS 전문어학원 edm아이엘츠는 친구와 함께 등록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 글로벌 영어강의업체 엔구는 소개자에게 강의권 3매, 소개를 받아 유료회원이 된 사람에게 첫 달 수강료를 5000원 추가 할인해준다.

양형보 기자